

지역 소식통

정읍시, 7월 9일 시청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정읍시는 오는 7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사관과 4개 전문 기관이 참여해 시민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소속 조사관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민원 상담 제도다.

여기에 '상담 예약제'를 도입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감사과나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예약 신청서를 내면 된다. 사전 신청 기회를 놓친 시민도 행사 당일 현장 접수를 거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예술회관에서 내달 3일 전북발레시어터 특별 공연

부안군은 오는 7월 3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2026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발레시어터의 특별 공연 'Coloring 비빔발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역예술단체와 공공 공연장이 함께 협력하여 창작 환경을 넓히고, 지역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며, 한국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의 오방색에서 착안해 다양한 색채와 감성을 발레로 표현한 작품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은 부안군민은 전석 2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연령은 36개월 이상이다.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예술회관(☎063-580-39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천에 국카스텐 · 하하 뜬다

### 정읍 물빛 축제 내달 31일부터 개최... 워터 EDM · 댄스 페스티벌 공연 등 다채

정읍시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정읍천 벽천분수와 미로분수 일원에서 국카스텐, 하하 등 유명 가수가 참여하는 '2026 정읍 물빛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올여름 정(井)했어! 물빛 춤추는 정읍의 여름밤'이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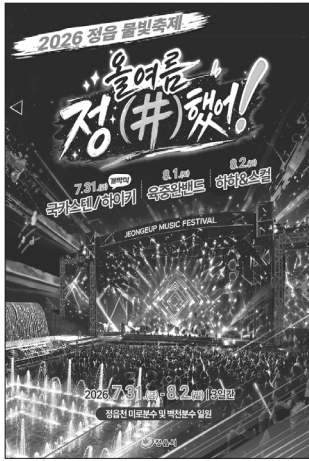
시는 지난해 어린이 축구장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행사 구역을 분수 주변 수변 공간으로 완전히 옮겼다.

여기에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 한층 역동적인 여름 행사로 변화를 꾀했다.

행사 기간에는 국내 정상급 예술가(아티스트)들이 대거 무대에 올라 시민들을 맞는다. 개막일인 31일에는 독보적인 록 음악을 선보이는 국카스텐과 케이팝 대표 여성그룹 하하가 분위기를 띄운다.

이어 8월 1일은 육중완밴드가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펼친다.

마지막 날인 2일은 하하&스컬이 출



연해 신나는 레게 음악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강렬한 박자와 시원한 물줄기가 어우러지는 전자 댄스 음악(EDM) 파티는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요 불거려다.

더불어 줌바댄스, 청소년 무대 등이 차례로 펼쳐져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새로 조성한 벽천분수의 물줄기와 촛불 분수의 은은한 조명을 활용한 물음악 공연(워터뮤직쇼)도 빼놓을 수 없다. 밤하늘 아래 물과 빛, 음악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색다른 낭만을 선사한다.

미로분수 주변에는 물놀이 구역(워터플레이존)을 비롯해 물총 싸움, 물빛 체험 행사, 먹거리 공간, 먹거리 트럭 등 온 가족을 위한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운영한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 물빛축제는 공연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수변 공간의 매력을 살린 체험형 야간 축제로 준비했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무더위를 잊고 시원한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안전하고 차질 없이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첫 발'

###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첫 멜론 정식... 본격 재배 돌입

고창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에서 첫 멜론 정식이 이뤄지며 본격적인 영농활동이 시작했다.

고창군은 스마트팜단지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지난 18일 스마트팜 온실에서 멜론 정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멜론 정식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 조성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영농 활동으로, 청년농업인이 영농 정착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스마트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2023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현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단지에는 총 12개팀이 입주 계약을 완료했다. 입주 농가들은 생육환경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고창군은 스마트팜단지를 미래



고창군은 스마트팜단지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지난 18일 스마트팜 온실에서 멜론 정식을 마쳤다고 밝혔다.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 파란곳간 김서연 대표, 생생마을 만들기서 '최우수상'

### 농촌지역 창업가 분야에서... 지역재생 · 지속가능한 농촌생태계 조성 성과 인정

부안군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가 주관한 제13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우수주인(농촌지역 창업가) 분야에서 계획면 '파란곳간' 김서연 대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주도 지역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이를 통한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했다.

군은 대표로 콘테스트 우수주인(농촌지역 창업가)분야에 참여한 '파란곳간' 김서연 대표가 부안 쌀의 생산·가공·체협이 연결된 융복합 모델의 발전과 농촌의 전통적 가치 및 공동체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역재생과 지속가능한 농촌생태계를 조성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농림축산식품부

가 주최하는 전국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우수주인 분야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을 위해 군 농촌활력도와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참가자 발굴, 신청서 작성 및 발표심사 컨설팅, 현장 지원 등 콘테스트 참여 전반을 지원하며 부안군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한편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자원과 마을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마을만들기 분야와 우수주인 분야 등에서 다양한 수상실적을 거두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전국유도대회 단체전 우승

### '양평몽양컵 전국유도대회' 서 개인전 메달도 다수 획득

고창군청 여자유도부가 지난 15~18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열린 '양평몽양컵 전국유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메달을 다수 획득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개인전에서는 김아현 선수가 여자 -78kg급 결승에서 순천시청 선수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한판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서운 선수는 여자 -52kg급 은메달, 김현아 선수는 여자 -57kg급 은메달, 서수빈 선수는 여자 -63kg급 동메달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단체전에서도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결승전에서 부산북구청을 상대로 3대 2 승리를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이정윤 선수와 김아현 선수는 각

각 허리후리기 한판승을 기록했으며, 서수빈 선수는 상대 선수의 기권으로 승리를 거두며 팀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선수단을 이끈 이지연 지도자는 우수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대회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고창군청 여자유도부는 개인전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과 지원을 통해 전국 최고의 유도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2026년 상반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열어... 안심 수질 관리 체계 점검

정읍시는 지난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2026년 상반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수질 검사 결과 공유와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민간 협력 기구다. 수질 검사 과정에 참여해 관리 방안을 자문하고 수도 시설 운영 개선점

을 제안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물 공급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유호연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수질 검사 결과와 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참석한 위원들은 취수부터 생산, 공급까지 이어지는 전체 수질 관리 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했다.

아울러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소통 확대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질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관찰과 선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